

“학습하고 버린 자료가 내 키의 두 배를 넘어”



피자는 1999년 당시 회사에서 자격증을 독려하여 그해에 정보처리기사, 다음해에 전자계산조작응용기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그 뒤 기술사 시험을 2년동안 준비했지만 합격하지 못하고 다시 준비하는 중에 앞으로는 정보시스템관리사가 사회적으로 중요할 것으로 생각해 시험에 응시하였고 2004년에 자격을 취득하였다.

기술사·관리사 자격 유망

정보시스템관리사는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전산원의 국가공인자격증으로 1년에 한 번 40명을 배출한다. 시험응시자격은 기술사, 박사 또는 기사 취득 후 7년 이상 등이며 시험은 1차 필기고사 이후 4차 면접까지 치르는 데 일년 정도 소요된다.

정보시스템관리사의 역할은 정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에 있어 효율성,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감리를 시행하고, 위험 예방 활동과 컨설팅, 최종적으로 평가를 시행하는 데 있다. 이에 관하여 작년 12월 8일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이 법률은 공공기관에서 정보시스템 구축 시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및 운영의 의무화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감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IT 종사자들은 거의 매일같이 야근을 한다. 새벽 3시에 택시를 타면 택시기사 분은 으레 손님이 IT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 시간에 벅타이 메고 술 취하지 않은 손님은 다 그렇다고 한다. 이런 사연들은 이미 유명하여 컴퓨터공학책에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다.

이렇듯 어렵게 일을 하면서도 진작 직장에서는 50세를 넘기기가 결코 쉽지 않다. 유독 IT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종사자 전체가 어려운 현실이지만 IT직종의 종사자들은 더 힘들다. 아울러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으로서 해를 넘길수록 걱정이 더 쌓여간다. 그리고 IT계통의 자격증은 다른 자격과 달리 딱히 자격의 고유권한이 별로 주어지지 않고 직업 연속성을 위해서도 별로 혜택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다행히 최근 정부에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이공계열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고, 자격 우대 정책으로 기술사 처우개선에도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급변 정보시스템 관련법에서도 감리를 의무화함으로써 앞으로 IT직종에서는 기술사, 관리사가 유망한 자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기개발도 중요하지만 생계수단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

취득을 지면을 통해 권해 드리고 싶다.

2년 반을 독서실에서

필자의 경우 자격증을 대비할 때는 그룹 스테디와 독서실을 이용했다. 혼자서 많은 지식을 학습하기가 쉽지 않아, 초기에는 자격취득 전문기관에서 학습했고, 이후에 그룹 스테디와 독서실을 이용하였다. 주말에는 그룹 스테디를 하는데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 분야 별로 인원을 구성하여 주제를 서로 나눠 조사하고 토론을 거쳐 정리하였고, 평일에는 독서실을 이용해 두 시험을 준비하면서, 독서실에 있는 시간만 2년 반 정도나 되었다. 그 결과 관리사 시험 합격 때는 상위권에 들 수 있었다.

자격증 시험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으면 참으로 힘들어진다. 가족이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들을 뒤로 해야 시간을 벌 수 있고, 학습할 때 요약정리가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 학습하고 버린 자료가 내 키의 두 배를 넘는다.

자격증 취득 후 사회적 활동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최근에는 회사의 배려로 실제 공공기관에 감리를 시행하기도 하였고, 그러한 현장경험이 업무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회사업 전산자문위원으로 활동하여 나름대로 경력관리를 했다. 현재는 더 배우고 싶은 열망으로 늦은 나이지만 대학원에 재학중이다. 뜻있는 많은 분들이 자기개발과 경력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늦게 시작한 것을 후회하기도 하였다.

끝으로 새해에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넘치고, IT 전문인으로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Users

글 조영주 (mbradio@paran.com)

인천도시가스(주) 경영정보실 팀장
국가공인정보시스템관리사
(사)한국컴퓨터사용자협회 인천지부 고문
(사)한국정보시스템관리사협회 상임이사

